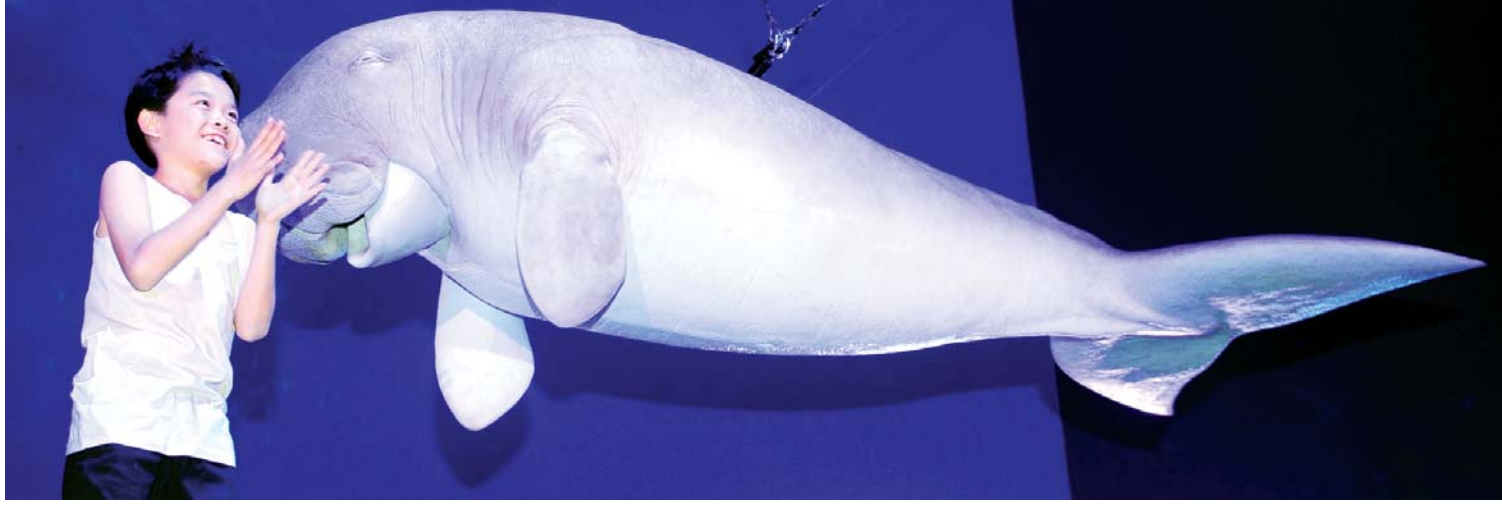


올림픽엔 굴렁쇠...엑스포엔 '듀공 소년'



여수세계박람회장 주제관에서 환경 오염의 위험을 경고하는 메인쇼의 하이라이트인 '듀공(Dugong)'과 '듀공 소년' 김용태군의 만남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용태 등 어린이 9명 듀공과 우정 나누며 환경 소중함 일깨워

“우리 동네에서 열리는 박람회 주인공을 맡아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물고기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988년 올림픽주경기장의 정막을 깨고, 경기장에 들어선 한 소년에게 세계의 눈이 쏠렸다. ‘굴렁쇠 소년’은 이렇게 올림픽 스타가 됐다. 88 서울올림픽에 ‘굴렁쇠 소년’이 있었다면 여수세계박람회에는 ‘듀공 소년’이 있다.

‘듀공 소년’은 이번 박람회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주제관에 등장

하는 주인공이다. 멸종 위기의 듀공과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오염된 바다가 ‘듀공 소년’의 노력으로 정화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펼쳐진 뒤 주제관 메인 상영관 천정에서 모뎀 ‘듀공’이 천천히 내려오면, 무대 아래에서는 ‘듀공 소년’이 무대에 오른다. 듀공은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려 ‘듀공 소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생명의 바다로 나가는 듀공과 소년의 이별 장면은 주제관 공연의 하이라이트다.

이처럼 ‘듀공 소년’은 ‘바다와 인간’의 상생이라는 이번 박람회 주제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해 준다. 관람객들은 듀공의 양증상은 모습과 귀여운 소년이 무대 중앙에서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에서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다.

현재 ‘듀공 소년’으로 출연하고 있는 여수지역 어린이는 9명이다. 이들은 90여 명이 참여한 개막전 공개 오디션 통해 선발됐고, 여수시연극협회(협회장 강기호)의 연기 지도를 거쳐 전시기간에 주제관

무대에 서게 됐다.

박람회 조직위는 애초 전문 아역 배우를 섭외하려고 했지만 여수지역 아이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개 오디션을 거쳤다.

지난 13일 연기를 펼친 메인 ‘듀공 소년’ 김용태(여수중앙초 6학년)군은 “큰 고래를 좋아하면서도 실제로 본적이 없어 아쉬웠는데 공연을 하며 듀공을 새롭게 알게 됐고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추가로 6명의 ‘듀공 소년’을 뽑을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원택기자 mtlim@

여수서 인류의 미래를 보다

기후·해양 전문가들 다양한 국제심포지엄 열어

바다와 인류의 공생을 모색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에 걸맞게 박람회 개막과 함께 다양한 국제심포지엄이 잇따라 열린다. 단순히 전시만 선보이는 게 아니라 기후·해양 전문가들이 여수에 모여 인류의 미래를 진단하게 된다.

먼저 박람회 조직위가 유차·지연하는 학술행사인 제2회 국제심포지엄이 오는 15일 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개막한다.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북대서양해양과학기구(ICES),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주최하고 한국해양학위원회, 한국해양연구원이 주관한다.

또 국내외 450여명의 전문가들이 세미나와 본회의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주고받게 된다.

13~14일에는 엠블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개막에 앞서 워크숍을 갖는다. 해양과학기술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컨퍼런스인 ‘OCEANS 12 MTS-IEEE Yeosu’(이하 컨퍼런스)도 오는 21~24일까지 여수 디오센터로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해양과학기술학회(MTS)와 국제전기전자공학회 해양공학학회(IEEE-OES),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KAOSTS),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관과 업계 전문가 등 모두 35개국에서 500여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해양과학, 해양공학, 해양산업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학술 교류와 최신기술 소개, 연구동향 파악 등 해양과학기술의 정책결정과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교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풍부한 자원보존과 미래지향적 활동’이라는 주제로 해양학·해양환경보호, 조선·연안 구조물과 공학, 해양-해양공학, 해양산업, 쓰나미,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로 72개 세션이 구성돼 300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류도리얼과 학생포스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고, 45개의 기관과 업체가 참가하는 전시회를 열어 해양플랜트, 해양방위시스템, 측량·센서, 해양물리·생태·화학·지질·환경·IT장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OCEANS 국제학술대회는 지난 1970년 파나마대회를 시작으로 북미권에서는 매년 1회,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韓·노르웨이 '평화·공존의 노래' 합창

하곤 왕세자 등 20여명 참석

한국과 노르웨이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평화와 공존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14일 ‘국가의 날 행사’를 맞아 한국-노르웨이 합동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하곤 왕세자, 트론드 가스케 통상산업부 장관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왕세자 일행은 공식 행사를 주관하고 한국관 등 전시관을 관람했다.

노르웨이 국가의 날의 백미는 노르웨이의 가수 하디 엔지, 리도 리도와

한국 가수 BMK의 합동 콘서트였다. 이들은 ‘음악으로 하나 되다’를 주제로 열창했고,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BMK가 ‘아름다운 강산’ ‘When I fall in Love’를 불렀다.

노르웨이관은 ‘지속 가능한 해양활동’이란 주제로 조선, 친환경 에너지 등 해양 관련 최첨단 기술을 전시하고 있다. 건축가 지로(Gyro)가 디자인했으며 ‘한국에서 노르웨이까지 인터랙티브 여행으로 초대한다’는 흥미로운 슬로건을 내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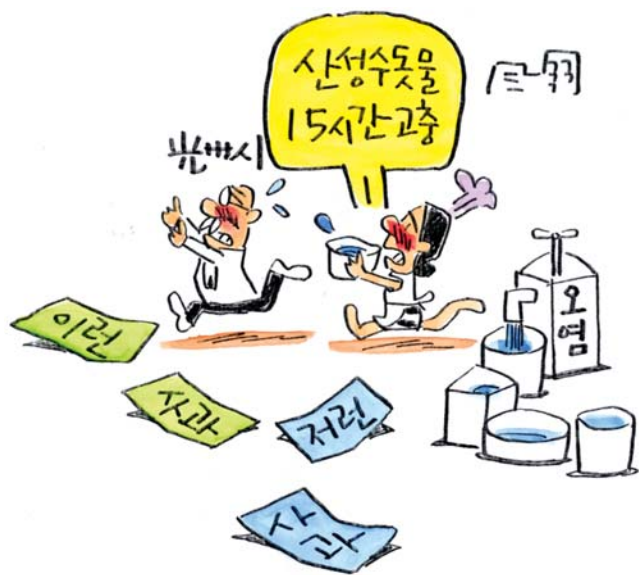
/동부취재본부=임원택기자 mtlim@



노르웨이의 국가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하곤 왕세자.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제발 냉수 먹고 속 좀...

박람회장 날씨 궁금한가요?

광주기상청, 맞춤형 기상정보 국문·영문 제공

광주지방기상청이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는 8월12일까지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은 여수 지역 날씨·기온·풍향·풍속 등의 기본 기상정보와 일별 자외선·블래지수 등 생활기상정보를 국문과 영문으로 하루 2차례 제공한다.

또 30분 간격으로 1km 구간의 3차원 바람·강수·낙뢰 및 기온 예측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기상정보 및 위험기상 정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된다.

기상정보를 원하는 시민들은 홈페이지(<http://www.kma.go.kr/wid/expo2012/kor/w/expo.jsp>)나 스마트폰으로 기상청 모바일 웹(m.kma.go.kr)을 다운받으면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제19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5. 22(화) 18:30

백운동 프라도호텔 다이아몬드홀

TEL.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정병용

호화 크루즈 日 관광객 400명 태우고 첫 입항

10회 이상 입항 예정

여수세계박람회 개막 후 호화 크루즈가 일본 관광객 400명을 태우고 박람회장에 첫 입항했다.

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일본인 관광객 400여명을 실은 일본 국제 퍼시픽비즈니스호가 박람회장내 크루즈 부두에 입항했다.

2만6000여급인 이 배는 지난 13일 오후 일본 고베에서 출발해 이날 박람회장에 정박한 뒤 15일 오후 11시에 출항한다.

일본 관광객들은 빅오쇼, 해상쇼 등 공연을 관람하고 일본관, 한국관 등을 둘러봤다.

한편 퍼시픽비즈니스호는 박람회 기간 중에는 오는 7월21일 한 차례 더

입항하게 된다. 또 세계 최대 국제 크루즈 선사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의 ‘레전드’를 비롯해 국제 크루즈가 10회 이상 박람회 기간 엑스포장 부두에 입항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크루즈를 통해 1만여명의 관광객이 박람회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www.gjstec.or.kr

광주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G.S.T.E.C

지상 12층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광주시민을 위한 시설이며 세미나, 학회, 동창회, 가족모임 등 각종 행사가 가능합니다

행사가능시설

- 레스토랑 : 150석규모, 다양한 메뉴, 저렴한 가격
- 숙박시설 : 총 31실(양실, 한실)
- 다양한 편의시설 : 헬스클럽, 사우나
- 각종 규모의 회의실 : 10석이상 최대 130석, 가변형 등 총 450석 규모의 회의실 5개 중소규모 회의실

※ 라마다호텔 위탁운영

회의실 **대연회장** **레스토랑** **객실**

GSTEC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Gwangju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9 | T.062)609-0500~1 F.062)609-0521

문의 및 예약
062)609-0500~1